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국민의견수렴

새만금개발청, 19일까지 '광화문 1번가 누리집' 통해 4차산업혁명 대비 실행력 갖춘 전략 마련 등에 역점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새만금사업 2단계 개발방향을 담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이달 5일부터~19일(15일간)까지 진행한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국토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

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새만금사업 1단계(2020년) 완료에 맞춰 최근의 다양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앞으로의 개발방향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광화문 1번가 홈페이지(누리집) '정책참여'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인하고

의견을 작성하면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대국민 의견수렴의 결과를 반영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한 후, 관계기관 협의와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2월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은 그간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실행력을 갖춘 개발전략을 마련하고, 투자여건을 크게 개선해 속도감 있는 개발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

이에, 개발목표를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변경하

고, 단계별 로드맵(이행안)을 구체화했다. 또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투자여건 개선방안과 공공주도 매립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새만금개발의 친환경성을 높이고, 탄력적·효율적 토지이용계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보완했다. 이용욱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이 K-뉴딜을 실현하는 도시개발의 대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와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유호상 기자

“기초단체가 재정 충분히 확보토록 목소리 낼 것”

민주 김수홍 의원 당 재정분권특위 위원에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익산 갑, 기획재정위)이 지난 3일 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김진표 의원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홍영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분권특위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6명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3명이 참여해 정부와 함께 2단계 재정분권을 완성한다.

김수홍 의원은 기재위 간사인 재선의 고용진 의원, 3선의 김경협 의원과 함께, 재정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다.

지난 2018년 말 지방소비세율을 4%p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1단계 재정분권은 완료됐으나, 2단계 재정분권은 관계부처간 이견 조정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당차원에서 관계부처 이견을 청취·조율해 2021년 상반기에 합의 도출, 연내 관련 법령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김수홍 의원은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7:3 재정분권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기초단체가 재정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고 특위활동에 대한 방향을 밝혔다. /유호상 기자

“국민이 주인되는 시대 함께 열어가자”

전북국민시대 온라인 출범식 정 총리 대선 도전 본격화 '주목'



전북국민시대(대표 이덕춘)가 2021년 신년인사회 및 제3기 출범식을 온라인으로 지난 6일 개최했다. 이날 정세균 총리(국민시대 명예고문)의 영상축사와 함께, '전북국민시대' 출범을 알렸다.

정세균 총리는 축사에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k-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우리 함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운 희망의 봄을 맞이하자”고 말했다.

이덕춘 전북국민시대대표는 인사말에서 “국민시대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깨어있는 시민의 모임이다”며 “더 헌신해 국민이 주인되는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다짐했다.

'국민시대'는 지난 2011년 처음 정세균 총리가 제안해 전국에 조직됐으며, 2012년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에서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면서 알려진 조직이다.

'전북국민시대'는 그동안 사회단체로서 그 명맥을 이어오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활동을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시대의 활동은 정세균 총리의 대권행보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5%의 벽을 넘어선 정세균 총리가 얼마나 더 상승할지 관심사다. 백신접종이 시작되고 코로나가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K-방역의 지휘자로서 정세균 총리의 진가가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 국민시대 관계자의 분석이다.

정 총리의 전북에서 지지율도 얼마나 상승할지 관심사다. 이들의 활동이 후발주자인 정세균 총리를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지지를 끌어 올릴지가 관심사이다.

이덕춘 전북국민시대 대표는 “대통령을 한번도 배출하지 못한 전북에서 정세균 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쟁에서 어느 정도 지지율을 확보할지는 4월 재보선이 끝난 직후, 개각을 통해 정치인으로 돌아올 즈음에야 가능성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후보물질 독성평가’ 지난해 최우수 성과로

안전성평가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KIT)는 2020년도 우수 연구성과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우수성과는 논문, 특허, 기술사업화, 산업계 지원 등 4개 부문에서 선정됐다.

이 중 최우수 연구성과로 산업계 지원 부문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후보물질 독성평가 지원’이 선정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독성평가를 진행한 사업이다. 연구소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통해 IND(임상시험용 신약) 승인과 임상2상, 임상3상 단계 등 의약품의 임상 적용에 필요한 독성평가를 진행했다.

특히,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치료제(후보물질 5개) 및 백신(후보물질 7개) 개발에 대한 비용 감축 및 개발 소요 기간 단축 등 빠른 대응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우수 성

과로 인정받았다. 한편,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 연구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및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지원협의체 등 다양한 정책 활동에 적극 참여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패스트트랙’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독성연구 및 안전성 평가시험 등을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5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에 기여한 우원식 국회의원에 전북도 명예도민증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 지원 공로

도, 민주 우원식 의원에 명예도민증 수여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에 기여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이 명예 전북도민이 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5일 전북도청에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원에 전북도 명예도민증을 전달했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전환산업 육성 특위 위원장으로 재임하며,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 주민, 기업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열어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출범에 일조했다.

또한, 민관협의회를 통해 10여년간 지지부진했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합의를 이끌어내 2020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그린뉴딜 및 해상풍력 비전선 포식에서 '주민상생형 전북 서남권 해

상풍력 협약'을 체결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국 최초로 해상풍력 사업추진을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합의로 2.4GW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 협약이 체결되는데 기여한 우원식 의원에 전북을 떠나서도 제2의 고향인 전북을 알리고 애환도민이 돼 달라는 뜻으로 명예도민증을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앞으로도 전북도와 맞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국회와 지자체 간 연결고리가 돼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나가는 선진의의회

새마을에는 나라를 행복하게 하세요

정읍시의회 www.jcc.or.kr